

##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April, 2016 | 미술세계

REVIEW

###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문성식 개인전:  
알못은 세계 Uncanny World

3.9-4.2  
두산갤러리 서울

글 | 김경아 기자

문성식의 작품에는 두 가지 풍경이 절주한다. '기억의 풍경'과 '박제된 풍경'이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풍경은 관조의 대상이었다. 그러기에 풍경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봐주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들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문성식의 작업 속에서 절주한다. 초현실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풍경들이 참 낯설다. 사실 문성식이 담고 있는 풍경의 대상은 자신의 일상적 경험에서 찾을 수 있는 친숙한 것들이다. 작가가 뿜어내는 기억의 배설물들은 어릴 적 가족 이야기에서부터 동네 주민들 이야기, 그리고 성장 후 이야기까지 그 진폭이 넓고 다양하다. 그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도상들은 그것이 인간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자신의 삶을 꺾적화시키기 위해 바쁘다. 사소하게 그려진 생명체들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의 욕망에 따라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묘사는 세밀하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낯설다. 도대체 문성식은 자신의 삶에 이미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풍경을 무심히 판조하지 못하고 왜 저리도 절주하게 하는 것일까.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문성식의 그림은 앞서 언급한 '기억의 풍경'으로서의 드로잉과 '박제된 풍경'으로서의 페인팅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우선 드로잉은 채색화에서 추구하는 회화적 목표나 완성도와는 별도로 작가에게 보다 '가깝고



문성식, 《숲의 나무》, 캔버스에 아크릴, 158.8×407cm, 1테이블릿, 2015-2016

솔직한' 그림 그리기의 실재를 드러낸다. 시골 고향집에서 치러졌던 할머니의 장례식 풍경, 형과 함께 했던 낚시, 겨울날 산책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작은 새 등 소소한 일상적 경험들이 세밀하고 뽀뽀하게 때로는 거친 선과 간결한 형태로 그려진다. 이는 작가가 세상과 그 안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에 대한 관심과 보편적 감정에 대한 궁금증에 기인한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문성식은 드로잉 에세이 『글과 아이』(2015)에서 "아주 어린 시절, 그 누구도 내가 그리는 그림에 관심이 없었을 때, 어떤 의무감도 없이 그리고 싶은 내 마음만이 유일한 동기이던 시절이 그림다. 앞으로 다시 그렇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항상 나는 그런 그리기를 꿈꾼다."라고 쓰고 있다.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에는 무엇이 들어 있고, 이것이 주는 아름다움이 어떻게 체험되는지에 대한 한 예술가의 오래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소박한 그림 한 장에 정성스레 포개어져 있다. 그리

고 그 대답을 읽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정하게 기울인다.

한편 페인팅은 자연, 동물, 인간의 풍경을 아우른다. 이 풍경에는 세계와 생명, 삶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가 다양한 결로 깃들어 있다. 《알》이란 제목의 작품은 자연과 인간체계의 무질서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는 알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는데, 4m 정도로 길게 이어지는 화폭은 작가 자신이 직접 보거나 혹은 수집한 자연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분적으로 의미심장한 기운이 느껴진다. 일련 평화로워 보이는 직사각형의 인공적 공간에서도 이곳의 환경에 적응해나가면서 각각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관계를 맺는 개별자들의 상호 작용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듯 문성식의 작품은 드로잉에서 페인팅으로 확장됨으로써 아주 사소한 생물들이 인간과 맺는 기묘한 관계의 밀도를 높인다. 가까이 다가가서 전체보다 세부를 들여다보게 하는 이 회화가 주는 매력은 마치 동화책의 어느 한 페이지의 장면처럼 친근하고도 낯설다. '알못'이라는 형용사로 번역된 'Uncanny'가 전시 제목이 된 이유도 이러한 까닭이지 않을까. 무수한 선과 물감의 텍스처가 주는 섬세함은 초기 작품에서 드러나는 편집중적 치밀함을 환기시키는데, 특히 구체적인 나무 그리기는 몽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문성식, 《알》, 캔버스에 아크릴, 158.8×407cm, 2015-2016

문성식은 유년시절의 환경 덕분에 꾸밈없고 솔직한 아이의 눈으로 자연을 탐구할 수 있었다. 인간과 동식물과 자연의 경계가 없는 삶을 몸소 체험했기에 생명에 대한 강렬하고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되었으리라. 이러한 점은 필자가 인상 깊게 읽은 『골과 아이』에 농축되어 있다. 사냥과 눈 오는 날을 마냥 즐거워하던 한 아이가 자라나 생명을 가진 것들이 건더야 하는 고달픔과 근심을 헤아리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한 인간의 절실하고 순수한 성장의 기록과 마주하게 된다. 작가에게 자연은 거기 있으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무한한 풍경이자 두려움과 매혹을 동시에 주는 미지의 세계이다. 인간과 동식물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만을 살다 가는 필멸의 존재인 셈인데, 문성식의 '알곳은 세계' 속 이 필멸의 존재들에게 부여된 유일한 임무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生)을 성실히 살아내려 애쓰는 것뿐이다. 사람과 사물 그리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아이처럼 보는 그 순진한 진실에도 깊이와 결이 있음을 나는 문성식의 그림



문성식, 〈작법〉, 종이에 연필, 22.7x37cm, 2014

에서 배운다.

단조롭게 박제되어 있는 기억들의 침묵의 고백을 뒤로 한 채 전시장을 나서면서 문성식이라는 예술가에게 있어 '그림을 그리는 마음가짐'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아이의 마

음으로 돌아가자고 한 니체 사상의 정수를 보여 주는 저서의 제목이 전시장 밖 원도우에 걸린 작품 제목인 것은 우연이었을까? 나도 모르게 중얼거려 본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